

특히 정교회의 일년에 절기때만 교회에 나가도 믿는 것이라고 하고 용납해 주는 의식이 깊게 자리잡은 이 곳에서, 말의 고백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 권면도 해 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젊은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접하게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끌 지 많은 고민 가운데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의 수고는 얼마나 헛된 것임을 다시 고백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꼭 중보 부탁드립니다.

(한국 방문 계획)

저희 가족은 6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은 휠체어로 생활 중이신 상주에 계신 어머니와 또 옆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수고하는 믿음이 아직 없는 형제자매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그리고 저희의 건강검진 및 여러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 방문합니다. 모쪼록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함께 저희와 선교 동역해 주시는 그리운 동력자님들도 뵙고 서로 간에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들로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하루의 첫 시간들을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영성을 잘 세워 나가도록..
2. 믿음을 고백한 학생들이 말의 고백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우선 순위로 세우는 실제 행함의 믿음이 되도록..
3. 한글 수업을 통한 복음 전파가 위축되지 않도록..
4. 시온이가 논문을 위한 프로젝트와 졸업 시험을 잘 끝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앞으로의 대학원 진로를 잘 발견하도록..
5. 여름 한국방문의 목적이 이뤄지고 은혜의 만남의 시간들이 되도록..

-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오 판석, 정 미라 선교사

김에스터선교사(한국 새터민 선교사)의 남편 되시는 김송호 목사님이 주님의 품에...

김에스터선교사(한국 새터민 선교사)의 남편 되시는 남편 김송호 목사님, 5개월 17일 투병 끝에 부활주일 새벽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5개월 동안 기도해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모두 바쁜 일정에도 장례식까지 찾아주셔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큰 힘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개월 전 병원 간 첫날부터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 희망 없다고 했으나 많은 분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 속에 매일 기적의 연속을 맛보면서 그 기적을 많은 사람과 나누면서,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 달 넘게 남편 병간호를 하면서 결혼 생활 29년 동안 아내로서 남편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원 없이 주었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결혼 생활 29년에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탈북민 제자 목사님 손에 입관 잘하고 약 200여 명의 (대한민국 많은 목사님과 장로 권사 집사님들과 탈북민 목회자와 성도님들) 조문객들과 남편의 천국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슬픔보다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장례식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북한에 있는 제자들이 19일 오전에 눈물의 메시지를 보내와서 탈북민 성도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해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 에스더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현재 건강해지시고 입맛도 돌아오셔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CT 촬영이 5/12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몸 속의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척추끝 부분 통증이 심하여 MRI 검사 결과 줄어든 암으로 인해 뼈부분이 연약하여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아르헨티나 강지에 선교사님이 유방암이 림프로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유성두와 더불어 코로나 후유증 없이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5. 강명철 선교사 - 영적 전쟁(우울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도록.
6. 이지향선교사 - 척추 협착증과 발 족저근막염이 치유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7. 베트남 이원재 선교사 - 장창선 사모님께서 위암 수술을 위해서 5월 4일 입원해서 5월 9일 수술 받게 되었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2년 5월 1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1명

자체파송 74%

탄자니아 잔지바르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53:5)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지금 이곳은 대우기철이어서 매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비가 늦어져서 가뭄과 더위가 극심하여 사람들이 많이 아팠었는데 우기철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수그러들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또 4월 2일부터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기도가 시작되어 약 2주 정도 지나고 있는데, 관광객입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메꿔나가는 이곳에서 라마단 금식이 시작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게 되어 잔지바르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가 최근 유가가 오르고 있고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물가가 치솟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성경대학)

할렐루야! 제8기 성경대학생들은 4개월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체 5팀 중에서 1번째 팀 (믿음의 기초, 성령의 은사들, 신약개론, 찬양과 경배) 과정을 마치고 2번째팀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이 초,중졸 수준이어서 학과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갈급함과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을 보면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와 전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의 용사들로 훈련되어져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노방전도)

매주 토요일에 키딤니와 동가부웨니, 은다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노방전도하고 있으며 우리 성경대학 학생들을 주축으로 하여 협력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때 성경대학 학생들뿐 아니라 성도들도 대부분 전도의 경험이 없어서 두려움을 느끼기에, 외부로 전도를 나가기 전에 2인 1조로 1:1 전도연습을 하면서 훈련을 한 후에 지금은 외부로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훈련을 쌓고 전도를 계속하면서 처음에 두려워하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나날이 담대하게 한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구령의 열정이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 하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멘.

(노아 학교 사역)

2022년 새학기를 시작한지 어느덧 4개월이 흘러가는데 신입생 모집때 3:1의 높은 경쟁율을 뚫고 들어온 학생들이 학교에 새로운 환경과 질서를 배워가며 조금씩 의젓해지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이곳이 98%이상 이슬람 나라이다 보니 결손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부모 결손가정들이 학교 주변으로 이사와서 학교에 입학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 정원 외에 더 받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이슬람 학부모들과 동네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에버그린 학교 건축부지를 구입하게 하심 감사드리며 또한 필요한 건축 재정이 공급되어 순전히 건축이 진행되도록
2. 학교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어져서 모두 구원 받기를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3. 저희 부부가 성령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고, 무슬림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4. 성경대학이 제 8기-13명 학생들이 생계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많이 큰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극복하여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5. 워크 퍼밋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6.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영육에 강건 하시기를
7. 우리 아들과 손주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 탄자니아 잔지바르 송규영,오효숙 선교사



광 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 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714-446-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네팔〉

하나님께서서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이후 중단되었던 학교가 지난 가을에 개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2022년 4월에 2학기 과정이 마침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총 10명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B.Th 과정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3년 과정으로 기술교육 그리고 신학과 성경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더불어 올해 7월 학교 증축을 시작하려 합니다.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도서관, 음악 교육실 등등 70평 대지에 3층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팔 김성윤. 오종향 선교사



〈인도〉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각기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낮이 되면 햇빛이 뜨거워서 다니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 사역자들도 낮시간에 사역을 하지 않고 아침과 오후에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센터 사역)

매주 월요일 마다 기술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와 함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직업훈련 센터에서는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1개월 코스로 에어컨 기술을 배우고 난뒤에 현장에 투입되어서 현장실습과 함께 크리스찬 일꾼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 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대면으로 새롭게 시작된 교사 강습회가 은혜가운데 잘 진행될수 있도록
2. 무더운 여름철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더위를 잘 이겨내면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3. 기술센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술 센터 사역을 통해서 크리스찬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4. 저희 가족들도 영육간에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인도 콜카타 정OO. OOO 선교사



GOD'S WORD, IN EVERY LANGUAGE, IN EVERY LIFE (1)

〈파푸아뉴기니〉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13)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코로나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해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변함없이 저희와 모여 성경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사역한 언어는 과하티케(Gwahatike), 우라트(Urat), 위피(Wipi), 시오(Sio), 툰각 (Tungag), 사니요-히에웨(Saniyo-Hiyewe), 알레(Yale), 용콴(Yongkom), 요프노(Yopno) 사 옐(Saep)입니다. 과하티케어, 우라트어, 위피어는 신약까지만 번역되었고, 사니요-히에웨어, 시오어, 툰각어, 용콴어, 요프노어는 신약 번역을 마치고 구약의 일부가 번역되었으며, 사옐어는 구약과 신약의 일부만 번역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아트물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만 명 정도로 현재 이 언어는 신약 번역이 끝나서 신약 성경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아트물 부족 현지인을 중심으로 구약이 번역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카룸파 센터의 인근 부족들의 교육열과 여성 인권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작은 움막에서 사는 조세핀은 학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가장 큰 노동 인력이며, 살림 밑천인 큰 딸 다비다를 고로카 대학에 진학시켰습니다. 현지 적응 훈련부서의 트리샤의 남동생도 대학에 진학하였고, 프레디도 여름까지만 문서보관 사역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A4 용지로 봉투를 만들어 세 사람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이었다. 바로 신정 이스라엘의 시작과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상징이기도 한 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훈련과정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살이를 상징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성막에 임재하고 계심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죄성에 찌들은 인간의 육신적인 과거의 습성으로 불순종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건중에 첫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먹거리사건이다.

광야에서 먹을거리가 풍족치 못해 과거 애굽 시절에 배불리 먹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며 원망을 한 것이었다(출16:3). 이는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모자라서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는 우리네 모습과도 별 차이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먹거리를 충족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신 것(출16:4)으로 우리에게도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만나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주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말씀을 연상케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용할 양식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 당시는 필요한 육의 양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보다는 오히려 영혼의 양식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광야에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계심을 알게 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많은 만나를 주어 쌓아놓고 먹게 하시지는 않으셨다. 오직 매일 각 사람이 먹을량(한 오멜)만큼 공급해 주셨다. 욕심을 내봐야 부식해 버리게 되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훈련으로 매일 쓸 것을 공급하여 각자가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다. 이 양식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마치 웅달샘의 물을 마시고 나면 다시 물이 채워지듯이 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주관자이요, 보호자이시며,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신 것이다. 당사자였던 모세는 이렇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신 8:3). 바로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나?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주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의 우리라는 의미는 나 아닌 타인들까지를 지칭하고 있다. 타인을 포함한 점은 구속사적인 성격으로 선교의 의미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건사해 주신다.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이 돌보신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말라. 하나님께 서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연연하지 말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 추어져야 한다.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나라 곧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길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말씀의 삶, 거룩한 삶과 영혼구원의 삶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구하여 충족히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려는 숨은 계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만남은 육의 양식을 넘어 영의 양식까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만남은 옛적만의 양식이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 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만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남이 더 많고 나는 적다라는 비교의식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많던 적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적의 만남의 분량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경우에도 자족과 풍요를 누리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만끽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여기에는 말씀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함이 내포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지금 우리는 삶에 초점을 어디에 주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것인가. 다시금 하늘의 만남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한다. 우리에게 성큼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 김대규 장로

(킬레오 유치원 사역)

3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배꼽인사를 하며 “굿모닝 티쳐”를 외치고 달려오는 아이들을 안아주는데, 이젠 외국인인 제가 무섭지 않나봅니다. 이젠 영어로 노래와 성경구절도 외우고 춤도 추며 밝은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에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젠 아이들과 많이 가까워져서 축구도 하고 풀밭 운동장에서 뛰놀며 유치원의 활기 찬 일과가 시작됩니다.

(킬레오 가정 사역)

저희 가정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변 가정도 돌아 보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집을 떠난 편모슬하의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주변의 집들을 돌아보면 열에 다섯 가정은 엄마와 살거나 엄마도 없이 할머니와 사는 아이들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놀다가 발을 갈고 공사판을 전전하게 된답니다. 마치 고아같은 아이들을 돌아보며 밥퍼사역을 통해 먹이고 돌보는 일들이 자주 생기면서 사역의 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 둘이서 학교와 건축 밥퍼등등,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보내신 아이들을 거절할 수가 없어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더 커지면 사역의 부분으로 놓고 기도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요청)

- 1.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겸손하도록
- 2. 보건소 건축이 잘 마무리 되도록
- 3. 고아같은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 4. 함께 동역할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 5. 저희 가정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에서 박미란 이병철 선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1)

샬롬! 알바니아에도 몸을 움츠러들게 했던 겨울이 끝을 고하며 벌써 봄이 찾아온 듯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면서 꽃들이 여기 저기 피고 파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겨울이 완전히 끝난게 아님을 말해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후 이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꽃들도 피다가 지다를 반복하며 그 고유한 생명력을 잃어가고 꽃들의 냄새에 유혹되어 꿀벌들도 봄인 줄 알고 나와서 활동하다가 죽어 점점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이렇듯 세상의 일들은 우리 마음을 들뜨게 유혹하거나 가끔은 걱정에도 사로잡히게 미혹합니다. 유혹에 이끌려 방만하지도 않고 미혹되어 주님께서 맡긴 삶과 일들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도 않도록,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바니아는...)

농경 산업 중심의 알바니아이기에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에도 큰 요동이 없었으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모든 물가가 놀랄 정도로 올랐습니다. 더하여 전 세계가 그렇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밀가루와 기름, 가스값이 대폭 상승한데 이어 지난 주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닭들을 폐사하여 닭고기와 계란 값이 크게 오르면서 알바니아 서민들이 사정이 더욱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는 몇 주째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위 다른 유럽의 나라들을 따라가는 정책을 펴는 알바니아여서 마스크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 저희 학생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부 코로나에 걸렸고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미크론의 여파가 아주 컷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학생들은 거의 맞지 않았기에 심각한 상태로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로 들어서면서 눈에 뵈 정도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한 두번씩 다 걸려서 알바니아 전국민이 면역이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의 우스갯소리가 맞는가 보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3차 접종까지 맞은 저희는 심한 독감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을 겪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제일 심하게 오래 앓았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잘 회복되었습니다.

(사역의 변화들)

펜데믹을 거치면서 저희로서는 사역 대상자들을 접촉하는데 많은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1년 가까이 온라인(비대면)으로 하다가 작년 가을부터는 예배와 한글 수업을 모두 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뀐 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학교로 찾아가서 만난 학생들 또는 SNS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스스로 찾아오는 학생들 중 10% 정도만이 부모님과 본인들의 강한 무슬림 신앙으로 성경공부와 예배 참석의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0%가 연락만 하고 찾아오지 않거나 대면해서 몇 명을 만나더라도 결정을 못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효는 많아졌지만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예배 참석이나 성경 공부를 요구하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싸움이 엄청 납니다. 우리가 주려는 것과 학생들이 받으려는 것이 달라서 늘 영적인 충돌을 겪어 왔습니다. 학생들도 온라인을 처음엔 어색해하고 불편해 하더니 점점 익숙해지고 집에서 인터넷만 열면 되는 편리함에 적응되어 비대면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매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했던 몇 명의 아이들도 이제는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경험한 안락함과 편함에 주일예배에 시간을 내지 않는 믿음 없음에 큰 아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바니아 오판석 정미라 선교사 <뒷장에서 계속...>

파푸아뉴기니의 한 부족에서 태어나 일평생 자기가 태어난 곳을 벗어나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으로 변화된 청년들과 아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동역자님의 헌신과 기도로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일이나 섬김을 받는 일이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동역자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1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1. 성경의 지속적인 번역과, 말씀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 2. 파푸아뉴기니의 치안이 안정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 3. 성령충만과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신 달란트와 지식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4. 루즈와 카렌 선교사를 아누키 부족으로 인도하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번역이 완역될 때까지 지혜롭게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신실한 현지인 조력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 5. 저희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장래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 파푸아뉴기니에서 김운용, 남영미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

귀하신 동역자 님들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니 어려움 속에서도 힘이 닿는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와 귀한 사랑의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주민 초청 잔치)

4월17일 부활절을 맞아 주민 초청 잔치를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대 우기철이어서 부활절 기간 3일 동안 큰 비가 온다하여 중보기도를 요청하였는데, 금요일부터 쉬지 않고 쏟아진 비가 부활절 아침엔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400명이 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켰습니다. 또 사랑의 섬김으로 25kg짜리 쌀 100포대와 음료수 ,빵, 과자, 치약, 칫솔, 양말과 무릎 담요를 선물로 나누었습니다.복음 잔치를 열도록 후원해 주신 김용호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학생 성경 통독 시작)

2월 달부터 성경책 100권을 후원받아 종교 시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기독교 아이들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큰 소리로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면 잘 읽은 친구들은 5명씩 따로 뽑아 시원한 음료를 사주고, 다른 아이들에게겐 쭈쭈바 한 개씩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책을 후원해 주신 이순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우야 신가 마을 구제)

3월6일 우물을 파 주었던 주우야 신가 마을에 옷 천벌을 가지고 구제를 나갔습니다.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선물을 한 아름씩 받고 “감사합니다. 코리야”를 연신 외쳤습니다. 마을이 산꼭대기에 있어서 물을 기르러 아랫마을까지 내려왔는데 숙원 사업이 해결되었다고 너무들 좋아합니다. 주우야 신가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약성경통독집회)

4월8-9일에 걸쳐 신약 성경통독을 선생님들과 학생들 40명이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간증시간엔 성경을 읽다가 병이 나고, 궁금한 말씀 을 깨달아 기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맛있는 음식과 과일을 대접해 주면서 중간 중간에 간식으로 섬겼더니 말씀이 너무 좋다고 구약도 하자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자는 의미로 해마다 부활절 전에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말씀이 선생님들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동역하는 교회가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건축을 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3번이나 정부에서 중장비로 강제 철거시켰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주 이곳저곳 장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학교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학교 문을 닫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곳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를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제목)

1. 중학교 건축을 위한 부지를 정부에서 주기로 했지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받고, 건축재정도 후원 받을 수 있도록
2. 올해는 4학년과 그리고 처음으로 중2학년이 국가시험에 응시합니다. 학교 평균이 95점이상의 성적이 나오도록
3. 선생님들과 스텝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4. 학교의 주인이 하나님임심을 고백하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스텝들이 되도록
5. 연로하신 어머니와 아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6. 저희부부가 영 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절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 탄자니아에서 정 부진 조 그레이스 선교사



새해들어서는 코비드가 좀 진정되는가 싶더니 또 난데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해 지난 한달동안 전 세계를 불안과 근심속에 몰아넣고 있어 진정 이 땅위에서는 참 된 평화가 없고, 마지막 때 일수록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살아야 할 때라고 다짐합니다.

아라랏미션에서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소그룹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명 아동을 연령별로 10개 그룹으로 나눠 모임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그룹리더들이 헌신적으로 잘 하고... 여러차례 Field Trip, Movie Night 등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 고아원 방문이 2년만에 재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들을 위한 러브캠프는 그래도 계속 진행해 왔지만, 고아원 방문은 코비드 규제로 문이 닫혀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다시 정기방문, 프로그램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아르메니아 교회를 한주간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넘어온 수 많은 난민들을 보호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함께 밤잠을 설치면서 약 1천여명의 난민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숙식하고 있는 20가정에게는 음식구입, 셀폰 충전기, 아이들 학용품등 꼭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나눠줬습니다.



4월7일에는 아라랏미션스쿨 (AMS) 제2기가 시작됩니다. 총 24명의 학생을 모집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8개월 훈련과정에 6개월은 온라인 클래스(한달에 한주간은 대면수업), 그리고 2개월은 현장 실습 아웃리치를 하게됩니다. 지난번 졸업생 가운데서는 5유닛, 8명이 이미 터키, 이란 그리고 스페인등지에 현지인 장기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수백명의 아르메니안 청년 선교사들이 인근 이슬람나라에 장기 선교사로 파송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GMI에서도 몇분 강사를 (온라인 또는 In person)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소식만 더 전합니다. 지난해 말 한기홍 목사님의 특별 지원으로 Building Hope Project를 시작했습니다. 철제 컨터이너, 흙집 구멍이집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극빈자 가족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집같은 집을 지어주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전만해도 1만불 정도로 집 재료값은 충당하고 공사 인력은 우리 청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면 가능한 일이었는데... 코드비를 지나오면서 모든 재료값이 2배이상 뛰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 집은 중단할 수 없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 2채 집만이라도 마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르메니아 2022년 기도제목 10가지)

1. 아르메니아가 무슬림 선교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오는 4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아라랏 미션 스쿨에 준비된 귀한 청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3. 이미 파송돼서 터키에서 사역을 시작한 5 유닛 가정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4. 아라랏 미션에서 돌보고 있는 150명 불우아동들이 예수의 소망을 품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5. 올해 2022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이 주님의 은혜가운데 잘 진행돼서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6. 소망의 집 지어주기 프로젝트 (Building Hope Project)를 통해 아르타샷지역 가난한 가족들에게 10채의 집을 지어줄 수있도록
7.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8. 장애아, 가족들을 위한 사역을 통해 진정한 예수의 사랑과 소망이 저들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도록..
9. 코로나로 인해 교회나 구제 사역, 그리고 선교사 파송에 지장이 없도록
10. 선교사의 성령 충만함과 가족, 건강을 주님께서 늘 붙잡아주시길 위해서

아멘 아멘 !!

- 아르메니아 백승환, 올라 선교사

(킬레오 공동체 소식)

4월의 킬리만자로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지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우는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4월이었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보건소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공급해주셔서 다시 시작하는데, 문제는 벽돌이었습니다. 벽돌기계가 고장나서 고치기를 여러 번 했지만 너무 늦어져서 다른 곳에서 벽돌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냥 블록이 아니라 바위를 잘라 만든 바위 벽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블록 벽돌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사장님의 배려로 보건소 짓는것을 협력하는 의미로 일반 블록과 같은 가격으로 짓게되어 마을주민들이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자기들은 흙으로 만든 벽돌을 사용하는데 시멘트블록도 아니고 바위 벽돌로 보건소를 짓는 것을 보고 기쁘하며 지나갈 때 마다 칭찬하며 “원드플 코리아”를 외치면 저는”모든 영광을 주님께” 로 답을 하며 외친답니다.

(킬레오 교회소식)

부활절을 맞아 생필품 나누기를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옥수수과 식용유, 설탕, 치약, 바셀린, 비누 등등 교인들에게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공책과 펜을 나누고 유치원 아이들에겐 비스킷과 사탕 과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후 콜라와 함께하는 점심 특식을 먹으며 모두 기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주 4회로 하는 밥퍼사역을 4월 초부터 하였는데, 이웃들과 배고픈 자들에게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